

저소득계층의 정보불평등 해소를 위한 도서관서비스 관련 연구

A Study on the Library Services for the Solution of the Information Inequality of the Low-Income People in Korea

안 인 자 (In-Ja Ahn)*

노 영 희 (Younghee Noh)**

장 로 사 (Rosa Chang)***

초 록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저소득계층의 개념과 기준 및 유형에 관하여 살펴보고, 사례조사에 의해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한 국내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저소득계층에게 필요한 새로운 도서관서비스로 저소득계층의 디지털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관련 프로그램의 시행과 저소득계층 성인 대상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취업 관련 프로그램 및 독서상담치료서비스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또한 저소득계층 대상 도서관서비스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방안을 5가지로서 ① 도서관법에서의 저소득계층의 개념과 기준 및 유형에 대한 명확한 규정, ②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서의 저소득계층 대상 도서관서비스의 강화, ③ 국가차원의 저소득계층 및 도서관서비스에 대한 현황조사, ④ 저소득계층의 실제적인 특성 및 정보요구 파악, ⑤ 저소득계층의 다양한 유형별 맞춤형 도서관서비스 개발 및 운영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relevant literature to review the concept of low-income class, its criteria and types. Based on the cases surveyed, the service status of public libraries for low-income class in South Korea was determined.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 proposed new library services necessary for low-income class, such as the implementation of relevant programs aimed at resolving the digital information divide of low-income class, the introduction of employment programs for the self-economic-support for low-income class adults, and the introduction of reading and counseling therapy services. In addition, this study proposed five policies for activating library services for the low-income class: ① To revise the act on library law so as to clarify the concept of low-income class, its criteria and types, ② to revise the master plan for library development so as to bolster the library services for low-income class, ③ to conduct a national-level survey of the low-income class status and of the library service status, ④ to determine the actual features of the low-income class and their information demands, and ⑤ to prepare library services tailored to the diverse types of low-income class.

키워드: 정보취약계층, 저소득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정보불평등, 정보격차, 지식정보격차, 디지털정보격차
Information Poor, Low-Income People, The Secondary Poor, Beneficiary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Information Inequality

* 동원대학교 문헌정보데이터관리과 교수(ijahn@tw.ac.kr) (제1저자)

**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irs4u@kku.ac.kr) (교신저자)

*** 건국대학교 지식콘텐츠연구소 선임연구원(rschang120@gmail.com) (공동저자)

논문접수일자 : 2018년 11월 10일 논문심사일자 : 2018년 12월 3일 게재확정일자 : 2018년 12월 3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9(4): 113-137, 2018. [http://dx.doi.org/10.14699/kbiblia.2018.29.4.113]

1. 서론

지식기반사회에서 개인과 사회 및 국가의 경쟁력은 지식과 정보의 보유정도 및 활용능력의 영향을 상당히 받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국가 간의 정보격차, 국가 내에서는 계층 간 정보격차(Information Divide)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한국은 정보격차의 해소를 국가의 중대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주요 기반 시설 중의 한 곳으로서 도서관은 정보취약계층(Information Poor)의 정보 접근권 및 활용능력을 강화시켜 주는 사회기반 시설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윤종욱, 곽동철, 심경 2012, 190).

‘도서관법 제43조’에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의 책무로서 “도서관은 모든 국민이 신체적·지역적·경제적·사회적 여건에 관계 없이 공평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받는 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도서관법 시행령 제21조’에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장애인, 노인, 농산어촌 주민 및 저소득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으로 인해 소득 수준도 높아지면서 국민의 문화적 수요에 근거하여 공공도서관의 건립은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보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도서관서비스는 미비한 실정이다(곽동철 외 2011, iii).

또한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도서관서비스의 강화가 필요한 유형으로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선정하였으며, 장애인과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도서관서비스의 지원체계 마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였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같은 저소

득계층의 도서관서비스 강화 측면에서 개념조차 규정하고 있지 않다.

즉, 현재 ‘도서관법 시행령 제21조’에서도 저소득계층을 기초생활수급자로만 명시하고 있지 도서관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계층의 개념과 기준 및 유형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없으며,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서도 지식정보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같은 저소득계층의 도서관서비스 강화 측면에서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술된 사항은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헌정보학분야 및 타분야의 문헌연구를 통해 저소득계층의 개념과 기준 및 유형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정보격차 해소 측면에서 적합한 도서관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계층의 개념과 기준 및 유형을 규정하였다. 또한 문헌 속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내외 저소득계층 대상 도서관서비스의 현황을 사례조사로서 살펴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내 공공도서관에 필요한 저소득계층 대상 도서관서비스를 제안하였다. 나아가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저소득계층 대상 도서관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국내 도서관계에서 저소득계층을 위한 서비스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저소득계층 대상 도서관서비스 관련 법 및 정책 수립 시에 기초자료로서 활용 가능할 것이다.

2. 선행연구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두 개의 부분

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첫째, 저소득계층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선행연구를 알아보았으며, 이는 세부적으로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사회 환경과 교육 및 문화복지가 저소득계층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해 연구한 선행연구를 개관하였다. 둘째, 도서관서비스가 저소득계층의 정보불평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함을 증명하는 선행연구를 조사하였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1 저소득계층에게 미치는 사회적 격차에 대한 연구

2.1.1 사회 환경과 저소득계층

정미라, 곽은순, 윤장숙(2007)은 저소득계층과 일반계층 아동의 양육 실태를 비교한 결과, 저소득계층을 위한 정부의 직접적인 양육지원 및 양육행동에 대한 계몽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도서관에서 저소득계층의 양육지원 및 양육행동에 대한 계몽교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저소득계층의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도출할 수 있다.

이후 엄태완(2008)은 저소득계층의 자기효능감과 사회적지지(복지 및 지원)가 경제적 스트레스와 우울 관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규명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23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가 경제적 스트레스에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우울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즉, 자기효능감이나 사회적 지지는

저소득계층을 지원하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저소득계층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지지 기관으로 도서관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인지할 수 있다.

2.1.2 교육과 저소득계층

이혜영(2005)은 사회불평등이 심화됨에 따라서 교육기회의 불평등도 심화되고 있으며, 도시 저소득계층의 교육격차와 빈곤 대물림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교육소외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학교가 함께 교육 여건과 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선행연구를 토대로 도서관이 교육여건 및 시설 관련 기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은우(2006)는 소득계층 간에 성적 격차를 발생시키는 요인을 밝혀냈으며, 그 결과 학생들의 성적은 사교육비와 가족 배경(부모의 소득, 학력, 직업)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선행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저소득계층 가정의 학생들의 사교육비를 절감시킬 뿐만 아니라 성적 격차를 해소하는데 도서관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김순양, 전기우(2011)는 대구·경북 지역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점에 관하여 토의하였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세부사업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일대일 학습지원, 가정방문 및 가족상담, 야간보호교실, 문화관련 특기적성 및 체험학습, 교육복지사 및 교사의 사업활동 지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선행연구의 결과를 기

초로 도서관이 문화관련 특기적성 및 체험학습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근래 허미연 등(2012)은 저소득계층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 밖 교육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학교 밖 교육으로 지역시설을 이용한 교육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지역사회 복지관, 민간사회단체 시설, 청소년 수련관, 기타 지역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선행연구의 결과를 통해 학교 밖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타 지역시설로서 도서관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 환경으로서 도서관은 저소득계층 가정의 학생들의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고소득층 가정의 학생들과의 성적 격차 및 정보불평등을 해소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1.3 문화복지와 저소득계층

서우석, 양효석(2013)은 문화복지 수혜 대상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집한 '차상위계층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데이터로 하여 문화적 박탈감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일반가구에 비해서 저소득계층 가구의 경우 문화적 박탈감을 느끼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도서관이 저소득계층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운영한다면 저소득계층 가구의 문화적 박탈감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신원우(2016)는 한국 국민의 전반적인

문화복지수준에 대한 인식과 전망 차이를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조사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스스로를 저소득계층이라고 인식할수록 여가·문화생활과 같은 문화복지수준에 대해 더욱 부정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저소득계층을 위한 여가·문화생활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과 함께 그 역할을 도서관이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도출할 수 있다.

최근 정보람, 전인수(2017)는 소득수준별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여건 차이를 규명하였으며, 분석결과, 거주지 주변의 문화환경 만족도와 일상생활에서의 문화예술 비중 등 일부 문화적 여건이 소득보다 행복감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 선행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저소득계층 거주지 주변에 도서관과 같은 문화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저소득계층의 문화환경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문화복지 측면에서 저소득계층 거주지 주변에 도서관을 확충하고, 도서관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저소득계층의 정보불평등을 해소하는데 공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살펴본 사회 환경과 교육 및 문화복지가 저소득계층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규명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함으로써 도출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표 1>과 같으며, 도서관에서 저소득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지원한다면 교육격차 및 정보불평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인지할 수 있다.

〈표 1〉 저소득계층에게 미치는 영향(사회 환경, 교육, 문화복지) 관련 선행연구의 시사점

구분	연도	연구자	시사점
저소득 계층에게 미치는 사회적 격차	사회 환경	2007	정미라, 박은순, 윤장숙 • 도서관은 저소득계층을 위한 양육지원 및 양육행동에 대한 계몽교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2008	엄태완 • 도서관 시설과 같은 사회적 지지가 저소득계층의 우울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교육	2005	이혜영 • 도서관은 저소득계층의 교육격차와 빈곤 대물림을 끊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2006	이은우 • 도서관은 저소득계층의 사교육비와 성적격차를 해소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2011	김순양, 전기우 • 도서관은 저소득계층을 위한 문화관련 특기적성 및 체험학습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2012	허미연 외 • 도서관은 학교 밖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문화 복지	2013	서우석, 양효석 • 도서관의 프로그램 및 서비스는 저소득계층의 문화적 박탈감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2016	신원우 • 도서관은 저소득계층의 여가·문화생활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2017	정보람, 전인수 • 도서관과 같은 문화시설은 저소득계층의 문화 환경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을 것임

2.2 저소득계층의 정보불평등 해소를 위한 도서관서비스 관련 연구

장덕현(2005)은 질적 면담과 참여관찰법을 실시하여 저소득계층의 정보요구와 정보형태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 결과, 향후 공공도서관에서 저소득계층을 위해 서비스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실천적 영역으로서 어린이/청소년 공부방, 문화강좌 프로그램, 독서치료와 가정문제 상담, 공공도서관의 전자정보서비스를 제안하였으며, 정책적 영역으로서는 사회복지 전달 사서 양성 및 레퍼럴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하였다.

또한 조용완(2007)은 도시 저소득계층과 이외에 장애인, 노인, 이주민, 농산어촌 거주자 등을 정보취약계층으로 규정하였으며, 국내 공공

도서관의 정보격차해소 활동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저소득계층은 일반적으로 거리, 교통수단, 교통비, 소요시간 등의 문제로 도서관 방문이 어렵기 때문에 이동도서관과 순회 문고는 저소득계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은철, 심효정(2008)은 공공도서관의 지식정보격차해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저소득계층은 공공도서관에서 주된 서비스 이용자층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공공도서관에서는 앞으로 지식정보 취약계층별로 실제적인 라이프 스타일이나 정보요구를 파악함으로써 지식정보 취약계층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고 실시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후 윤희운(2012)은 공공도서관의 지식정보 취약계층서비스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저소득계

층은 기초생활수급자로 규정하였고, 이들을 위한 도서관프로그램 서비스로는 취업·직업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며, 이외에 교양·생활, 지식정보해득력 프로그램 순으로 중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같은 해에 이연옥, 노영주(2012)는 독서프로그램이 저소득계층 아동을 포함하여 소외계층 아동에게 미치는 효과와 의미에 대해서 고찰하였으며, 조사결과, 소외계층 아동의 독서에 대한 관심과 태도가 독서프로그램 참여 후에 긍정적으로 변화됨으로써 아동의 정서적인 면도 함께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앞에서 알아본 도서관서비스가 저소득계층의 정보불평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증명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도출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표 2>와 같으며, 이로써 저소득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운영은 저소득계층의 정보불평등을 해소하는데 이바

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3. 연구설계 및 연구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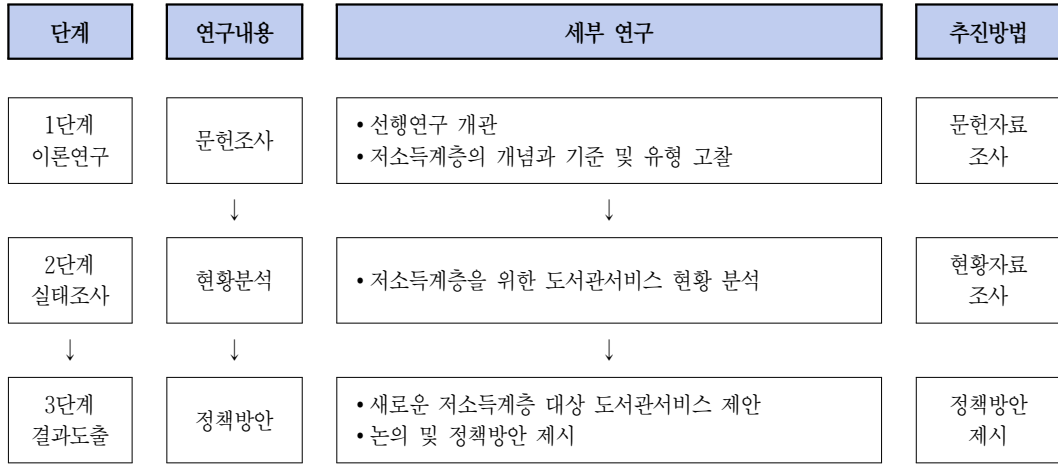
3.1 연구설계

본 연구의 연구설계를 제시하면 <그림 1>과 같으며, 문헌연구를 통해 저소득계층의 개념과 기준 및 유형을 살펴보고, 이로써 도서관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계층의 개념과 기준 및 유형을 규정하고자 한다.

또한 문헌 내의 사례조사로서 국내외 저소득계층 대상 도서관서비스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내 공공도서관에서 도입이 필요한 새로운 저소득계층 대상 도서관서비스를 제안하고, 나아가 분석결과를 토대로 저소득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였다.

<표 2> 도서관서비스와 저소득계층의 정보불평등 해소 관련 선행연구의 시사점

구분	연도	연구자	시사점
정보 불평등 해소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	공공 도서관	2005	장덕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소득계층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실천적 영역으로서 어린이/청소년 공부방, 문화강좌 프로그램, 독서치료와 가정문제 상담, 전자정보서비스를 제안함 정책적 영역으로서 사회복지 전담사서 양성 및 레퍼럴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함
		2007	조용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소득계층을 위한 이동도서관 및 순회문고 서비스를 제안함
		2008	이은철, 심효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식정보 취약계층별로 실제적인 라이프 스타일이나 정보요구를 파악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고 실시해야 함
		2012	윤희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소득계층을 위한 도서관프로그램 서비스로 취업·직업 프로그램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며, 이외에 교양·생활, 지식정보해득력프로그램 순으로 중시되어야 함
	독서 프로그램	2012	이연옥, 노영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소득계층 아동의 독서프로그램 참여는 정서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됨



〈그림 1〉 연구설계 모형

3.2 연구질문

본 연구에서 논의될 연구질문은 크게 다섯 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RQ 1: 저소득계층의 개념과 기준 및 유형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 RQ 2: 도서관에서 서비스해야 할 저소득계층에는 누가 포함되는가?
- RQ 3: 현재 도서관에서는 저소득계층을 위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
- RQ 4: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저소득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로 어떤 것들을 제안할 수 있는가?
- RQ 5: 저소득계층 대상별 도서관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4. 분석결과

4.1 저소득계층에 대한 개념과 기준 및 유형

저소득계층(Low-Income People)이라는 개념은 빈곤층(Poor People)과 유사한 용어로서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소득수준이 가구당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즉,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을 저소득계층이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현재 법적으로 저소득계층의 개념에 대해 규정된 조항은 없으며, 저소득계층의 기준도 상이한 실정이다. 이에 저소득계층과 관련된 사회복지학, 교육학, 법학, 행정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수행된 연구들에서도 저소득계층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 개념이 동일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저소득계층에 대한 개념과 기준 및 대상을 조사·분석함으로써 도서관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계층의 개념 및 유형을 선정하였다.

4.1.1 저소득계층의 개념

저소득계층이라는 용어는 빈곤층과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구분된 계층으로서 저소득계층이라는 용어가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함의를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강정숙 2004, 7).

또한 현재 저소득계층에 대한 개념은 사회적 인 함의에 의해서 명확하게 규정된 정의가 없는 실정하기에 여러 관련 선행연구들에서 정의하고 있는 개념도 각각 상이하다(박서영 2018, 8). 구체적으로 국내외 연구자별로 저소득계층의 개념에 대해서 정의한 부분을 알아보면 <표 3>과 같다.

위에서 살펴본 국내외 연구자들이 저소득계층의 개념에 대해 정의한 부분들을 종합·정리 함으로써 가장 통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저소

득계층의 개념과 이를 통해 도출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표 4>와 같다.

먼저 일반적으로 저소득계층이란, 경제적인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으로서 공적인 빈곤기준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본다면 기초생활수급권자(1순위)와 차상위 계층(2분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내외 연구자별 저소득계층에 대한 개념 정의를 종합한 결과를 토대로 도출한 시사점으로 소수의 연구자는 저소득계층을 소득수준이라는 경제적인 수준 이외에 사회적으로도 불이익을 당하는 극빈계층으로 규정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Balkin(1989)은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 인종적 차별을 겪고 있는 사람, 모자세대 등이 소득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저소득계층으로 규정되어서

<표 3> 연구자별 저소득계층의 개념 정의

연도	연구자	저소득계층의 개념 정의
1989	Balkin	• 적은 수입 이외에 사회적으로도 불이익을 당하는 극빈계층
1994	김혜영	• 한 사회의 소득분배구조에서 일정한 정도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개인이나 가구
2004	강정숙	•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한의 소득에 위치해 있는 계층
	박영아	• 공적인 빈곤기준에 따라 생활보호의 수준과 같거나 그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는 계층
2018	박서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복지혜택이 필요하다고 명시한 기초생활수급권자(1분위)와 차상위 계층(2분위) 및 해당법에서 규정한 개념은 아니지만,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한 차차상위 계층(3분위)과 4분위까지 포함하는 것이 필요함

<표 4> 저소득계층의 개념 관련 시사점

연도	연구자	시사점
1989	Balkin	• 저소득계층의 개념을 경제적 소득수준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불이익을 당하는 극빈계층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함
2004	김혜영	• 저소득계층의 개념을 기초생활수급권자(1분위), 차상위계층(2순위), 차차상위 계층(3분위)과 4분위와 같은 경제적 소득수준이 낮은 절대적 빈곤계층을 의미한다고 규정함
	박영아	
2018	박서영	

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해서 저소득 계층의 개념은 경제적인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불이익을 당하는 극빈계층을 포함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계층을 많은 연구자들이 정의한 경제적인 소득수준과 소수의 연구자가 제시한 사회적인 복지혜택 수준을 포함하여 규정하였다. 즉, 도서관서비스 대상으로서의 저소득계층이란 경제적인 소득수준이 낮아서 가구당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누릴 수 있는 도서관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계층으로 정의하였다.

4.1.2 저소득계층의 기준

저소득계층을 규정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소득기준으로서 최저생계비이며, 이에 대해서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먼저 최저생계비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조에서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명시하고 있다(김태완 외 2017, 28).

또한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최저생계비를 계측한 최초의 역사는 보건사회부 산하 사회보장

심의위원회가 1973년과 1978년 두 번으로 나누어 반물량 방식으로 계측한 것이었으며, 반물량 방식이란 미국 농무성의 Orshansky(1965)에 의해 제시되었는데 저소득계층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식료품지출비에 ‘3’을 곱한 화폐액을 빈곤선(Poverty Line)으로 정하는 방법을 뜻한다. 1988년 이후에는 일곱 번(1988년, 1994년, 1999년, 2004년, 2007년, 2010년, 2013년) 계측이 실시되었고, 이 중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최저생계비를 공표한 것은 다섯 번(1999년, 2004년, 2007년, 2010년, 2013년)이었다. 이로써 한국에서 최저생계비를 계측한 역사는 비교적 짧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처음 두 번 출간한 보고서를 보면 최저생계비를 계측하는 목적은 생활보호법 상의 생활보호자들을 선정하고 지원하기 위한 급여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제시하였다(서병수 2008, 384).

구체적으로 한국에서 계측한 최초의 최저생계비는 1973년 사회보장심의위원회가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계측한 값으로서 그 당시 1인 가구 기준으로 4,348원/월, 4인 가구 기준으로는 17,392원/월이었다. 이후 2013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계측한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으로 656,477원/월이었으며, 4인 가구 기준으로는 1,638,040원/월 인 것으로 계측되었다. 근

<표 5> 최저생계비의 기준

(단위: 원/월)

최저생계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출처
1973	4,348	8,696	13,044	17,392	박찬용, 김미숙 1998
2013	656,477	1,036,978	1,354,937	1,638,040	김태완 등 2013
2015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고시
2018	668,842	1,138,835	1,473,260	1,807,681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고시

래 2015년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제2항에 의거하여 고시한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으로 617,281원이었으며, 4인 가구 기준으로는 1,668,329원인 것으로 계측되었다. 최근 2018년 보건복지부에서 산정한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으로 668,842원이었으며, 4인 가구 기준으로는 1,807,681원인 것으로 계측되었다.

앞에서 저소득계층의 기준에 대해 조사한 부분들을 종합함으로써 가장 통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저소득계층의 기준과 이를 바탕으로 도출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표 6>과 같으며, 한국에서 저소득계층으로 규정할 때 일반적으로 많이 적용하는 판단기준은 경제적인 소득기준으로서 최저생계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인 2015년에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제2항에 의거하여 고시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삼았다. 즉, 예를 들어 소득수준이 1인 가구와 4인 가구 기준으로 최저생계비가 각각 617,281원과 1,668,329원 이하인 경우 저소득계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도서관

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계층의 경제적인 소득 기준으로 위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4.1.3 저소득계층의 유형

저소득계층의 유형을 먼저 도서관법 시행령 및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서 살펴보고, 또한 문헌정보학 이외의 타학문분야와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도서관서비스가 필요한 정보취약계층 및 저소득계층과 관련하여 생산된 연구 논문 및 보고서를 대상으로 하여 조사·분석하였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도서관법에서의 유형

‘도서관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정보취약계층을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65세 이상의 노인, 농산어촌 주민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도서관법 및 시행령에서 도서관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계층의 개념과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서관에서 서비스해야 할 저소득계층의

<표 6> 저소득계층의 기준 관련 시사점

연도	계측기관	시사점
1973	사회보장심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에서 계측한 최초의 최저생계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1인부터 5인까지의 최저생계비를 계측함 1인 가구 기준으로 4,348원, 4인 가구 기준으로는 17,392원으로 계측됨
201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을 규모에 따라 대도시와 중소도시 및 농산어촌 세 개로 구분하여 최저생계비를 계측했다는 점이 특징적임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1인부터 7인까지의 최저생계비를 계측함 중소도시를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보았을 때, 1인 가구 기준으로 658,134원, 4인 가구 기준으로는 1,642,173원으로 계측됨
2015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의 규모에 따른 구분 없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1인부터 7인까지의 최저생계비를 계측함 1인 가구 기준으로 617,281원, 4인 가구 기준으로는 1,668,329원으로 계측됨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서도 명시된 사항이 없는 상태이다.

2)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서의 유형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도서관서비스의 강화가 필요한 유형으로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선정하였으며, 장애인과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도서관서비스의 지원체계 마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였다. 하지만 현재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서 지식정보 취약계층인 저소득계층의 도서관서비스 강화 측면에서 명확하고 상세하게 규정된 사항은 없는 실정이다.

위에서 분석한 도서관법 및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근간으로 도출한 저소득계층의 유형 관련 시사점을 제시하면 <표 7>과 같다.

아직 국내의 도서관법 및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서 도서관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계층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된 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로써 향후 도서관법에서는 도서관에서 서비스해야 할 저소득계층의 개념과 기준 및 대상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 또한 앞으로 2019년 이후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시에는 지식정보 취약계층 중 저소득계층을 강화하여 관련 도서관서비스의 방향

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수행된 정보취약계층 및 저소득계층만을 대상으로 하여 수행된 관련 연구논문 및 보고서들에서 구분하고 있는 저소득계층의 유형을 비교·종합함으로써 도서관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계층의 대상을 선정하였으며,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 문헌정보학 이외의 타학문분야에서의 유형

문헌정보학 이외의 타학문분야에서 출판된 연구논문 및 보고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취약계층 및 저소득계층의 유형에 관하여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생활수급자만을 저소득계층의 대상으로 규정한 자료들을 살펴보았다. 김유미(2007)는 정보취약계층을 일차적으로 장애인, 농어민, 노년층, 저소득계층으로 나누었으며, 저소득계층은 세부적으로 기초생활수급층만으로 한정하였다. 이후 황소연(2010)은 정보취약계층을 장애인, 노인, 이주민, 저소득계층으로 분류하였으며, 저소득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제한하였다.

둘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포함하여 저소득계층의 대상으로 규정한 자료들을 조사하였다. 강정숙(2004)과 엄태완(2008)은 연

<표 7> 도서관법 및 도서관발전종합계획 관련 시사점

구분	시사점
도서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계층의 개념과 기준 및 대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된 바 없음 • 향후 도서관법에서 도서관에서 서비스해야 할 저소득계층의 개념과 기준 및 대상에 대한 명확한 규정 필요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계층의 도서관서비스 강화 측면에서 명확하고 상세하게 규정된 사항 없음 • 앞으로 2019년 이후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시에는 저소득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강화 측면을 모색해야 함

구대상으로 선정한 저소득계층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구분하였다.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기초생활비를 지원받는 수급권자는 아니지만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으로서 상대적 빈곤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집단을 말한다(허미연 외 2012, 14).

셋째, 특정집단으로 제한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저소득계층의 대상으로 규정한 자료들을 알아보았다. 박영아(2004)와 민은성(2012)은 저소득계층을 소수 집단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정미라, 박은순, 윤장숙(2007)은 저소득계층을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와 차상위자 아동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넷째, 기초생활수급자(절대적 빈곤층) 및 중위소득 50% 또는 차차차상위 가구(상대적 빈곤층)까지 포함하여 저소득계층의 대상으로 규정한 자료들을 고찰하였다. 허미연(2012) 등은 저소득계층을 절대적 빈곤층인 기초생활비 지원대상자 뿐만 아니라 중위소득 50%의 상대적 빈곤층까지 포함하였다. 중위소득 50%까지 저소득계층 범위를 확대해야 함을 주장하는 근거로서 현재 지자체 교육청에서 실제적으로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는 범위가 소득하위 70% 또는 일반아동 전체로 확대되는 추세라는 점을 들었다.

이후 서우석, 양효석(2013)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과 같은 경제적 소외층을 문화복지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쟁점이 제기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저소득계층을 기초생활수급 가구뿐만 아니라 차상위 가구(가구의 경상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미만인 비수급 가구)와 차차상위 가구(가구의 경상소득이 120%~180% 미만인 가구) 및 차차차상위 가구(가구의 경상소득이 최저생계비 180%~250% 미만인 가구)를 포함하였다.

다섯째, 최근 연구보고서에서 구분하고 있는 저소득계층 가구유형을 개관하였다. 김태완 등(2017)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간행된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에서 최저생계비 계층을 위한 저소득계층의 가구유형을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구와 4인 가구(심층조사)로 분류하였으며, 이외의 가구형태로 조손 가구와 소년소녀가장 및 기타를 포함하였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기초보장연구실(2017)에서 발행한 '2017년 빈곤통계연보'에서는 빈곤율을 측정하기 위한 저소득계층의 가구유형을 여성가구주 가구, 노인, 아동, 한부모(모자) 가구 등으로 구분하였다.

앞에서 알아본 문헌정보학 이외의 타학문분야에서 출판된 연구논문 및 보고서에서 구분하고 있는 저소득계층의 유형을 종합한 결과를 기초로 하여 도출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표 8>과 같으며, 가장 일반적으로 많은 연구논문 및 보고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소득계층의 유형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4) 문헌정보학 분야에서의 유형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생산된 연구논문 및 보고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취약계층 및 저소득계층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8〉 문헌정보학 이외의 타학문분야 관련 시사점

유형	연도	연구자	시사점
기초생활수급자	2007	김유미	• 저소득계층의 유형을 기초생활수급자만으로 제한함
	2010	황소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004	강정숙	• 저소득계층의 유형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포함
	2008	엄태완	
	2017	김태완 외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 2017년 최근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해 저소득계층의 유형을 구분했다는 점이 주목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특정집단 제한	2004	박영아	• 특정집단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함
	2007	정미라, 곽은순, 윤장숙	• 특정집단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동만을 대상으로 함
	2012	민은성	• 특정집단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함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위소득 50% 또는 차차차상위가구	2012	허미연	• 저소득계층의 유형을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위소득 50%까지 포함
	2013	서우석, 양효석	• 저소득계층의 유형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구, 차차상위가구, 차차차상위가구까지 포함

첫째, 기초생활수급자만을 도서관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계층의 대상으로 규정한 자료를 알아보았다. 조용완(2007)은 공공도서관의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장애인을 제외한 65세 이상의 노인 및 저소득계층으로 선정하였으며, 저소득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둘째, 기초생활수급자에 따른 도서관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계층의 대상범위를 다양한 계층으로 규정한 자료들을 조사하였다. 남영준(2007)은 도서관서비스가 필요한 정보취약계층의 유형을 장애인, 노인, 해외이주노동자, 새터민, 결혼이민자 및 수급권자로 규정하였다. 이 중 수급권자인 저소득계층에 해당될 수 있는 부류는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교도소 출소자 등 다양한 계층이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곽동철 등(2011)은 도서관에서 서비스해야 할 정보취약계층을 장애인, 노인, 농산어촌

주민, 기초생활수급자(저소득계층)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이 가운데 저소득계층 집단은 교차하는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이 파생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후 윤희운(2012)은 공공도서관에서 서비스해야 할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유형을 장애인, 다문화가족, 노인, 농산어촌주민, 기초생활수급자로 나누었다. 이 중 저소득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의 대다수는 경제적 빈곤층을 지칭하지만 장애인, 다문화가족, 노인, 농산어촌주민인 경우도 존재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셋째,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을 도서관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계층의 대상으로 규정한 자료를 개관하였다. 장덕현(2005)은 공공도서관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봉사방안을 모색하고자 전국 4대 권역 및 5대 광역시 지역 내에서 건설교통부가 지정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에 속하

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도시 저소득계층으로 규정하였다. 많은 연구논문 및 보고서에서 저소득계층의 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으로 규정하는 것에 비해서 이 연구에서는 저소득계층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넷째,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기관(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보육원 등)에 소속된 사람들을 도서관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계층의 대상으로 규정한 자료를 고찰하였다. 이연옥, 노영주(2012)는 독서프로그램이 소외계층 아동에게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하여 소외계층 아동에 시설아동 및 장애아, 다문화가정 아동 및 저소득계층 아동을 포함하였으며, 실제적으로 관련 시설에 소속된 아동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즉,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영아원 및 보육원, 기타 모자원, 장애아지원기관, 다문화아동지원기관, 청소년기관, 복지관 등에 소속되어 있는 아동을 소외계층 아동으로 선정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출간된 연구논문 및 보고서에서 구분하고 있는 저소득

계층의 유형을 종합한 결과를 토대로 도출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표 9>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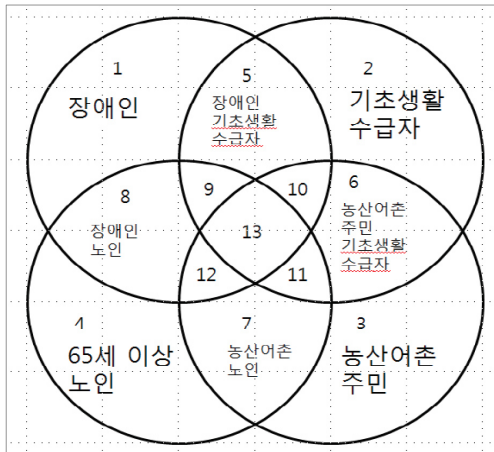
이처럼 저소득계층의 대상 및 유형 구분에 대한 접근은 방대한 학문 분야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법 시행령과 도서관발전종합계획 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논문 및 보고서에서 규정한 저소득계층의 유형을 비교·종합함으로써 도서관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계층의 대상을 선정하였다. 즉, 저소득계층의 유형을 규정한 관련 연구논문 및 보고서를 바탕으로 도서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그림 2>에서와 같이 저소득계층에 포함될 수 있는 유형은 장애인, 노인, 농산어촌주민 등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음을 전제하였다. 예를 들어, <그림 2>에서의 집단 5, 6, 9는 기초생활수급자인 동시에 각각 장애인, 농산어촌주민, 노인이라는 두 개의 속성을 지니며, 집단 10, 11은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장애인, 농산어촌주민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인 동시에 농산어촌주민, 노인이라는 세 개의 속성을 갖고, 집단 13은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장애인, 노인,

<표 9> 문헌정보학 분야 관련 시사점

유형	연도	연구자	시사점
기초생활수급자	2007	조용완	•도서관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계층의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로 규정 •도서관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계층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의 대상범위는 다양한 계층이 존재함
	2007	남영준	
	2011	곽동철 외	
	2012	윤희윤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거주주민	2005	장덕현	•도서관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계층의 대상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거주주민으로 함
소외계층 지원기관 소속원	2012	이연옥, 노영주	•독서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할 저소득계층의 대상을 소외계층 지원기관의 소속원으로 함

농산어촌주민이라는 네 개의 속성을 모두 지닌 다(곽동철 외 2011, 38-40).



〈그림 2〉 저소득계층의 교차

출처: 곽동철 외 2011,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의 정보취약계층서비스 확대전략개발 연구』.

따라서 도서관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계획 및 운영할 때는 무엇보다 저소득계층에 포함될 수 있는 유형이 다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장애인, 노인, 농산어촌주민, 다문화가족, 한부모 가정, 소년소녀 가장, 노숙자, 교도소 출소자 등과 같은 다양한 유형별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4.2 저소득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의 현황

현재 국내에서 저소득계층을 포함하여 노인, 장애인, 농산어촌주민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의 현황을 파악한 관련 연구 논문 및 보고서는 수행되었지만 저소득계층만을 위한 도서관서비스의 현황을 심층적으로 조

사한 관련 자료는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여러 관중 중 저소득계층만을 위한 서비스는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하여 수행된 연구논문 및 보고서가 중심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지금 운영되고 있는 저소득계층만을 위한 국내의 도서관서비스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밝혀내기는 어려운 상태이며, 저소득계층 대상 서비스는 여러 관중 중 공공도서관에 편중되어 실시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저소득계층만을 대상으로 한 도서관서비스를 강화할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도서관마다 저소득계층만을 위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출간된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의 현황을 분석한 관련 연구논문 및 보고서 안에서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저소득계층만을 위한 서비스를 추출하여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실시된 적이 있는 저소득계층을 위한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현황을 규명하였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2.1 국외사례

황소연(2010)은 피츠버그 카네기도서관과 필라델피아 무료도서관에서 운영한 미국의 저소득계층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사례를 소개하였다. 먼저, 피츠버그 카네기도서관의 'Beginning with Books' 프로그램은 피츠버그 카네기도서관에서 저소득계층 아동의 학업 성취와 독서능력에 대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였다. 무엇보다 저소득계층 아동을 도서관으로 유인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였으며, 이를 위해 빈민 지역에 거

주하는 부모와 아동들에게 책과 함께 도서관 소개 및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수록한 팜플렛을 담아 선물하였다. 또한 실제적으로 피츠버그 빈민층 거주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이야기 차'라는 순회도서관 서비스를 운영하였으며, 이는 저소득계층 가구의 자발적인 도서관 방문을 이끌어내는데 공헌을 하였다(황소연 2010, 56).

또한 필라델피아 무료도서관의 '정보기술실연 프로젝트'는 필라델피아 무료도서관에서 저소득계층의 디지털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실제적으로 2개 국어에

능통한 전문사서와 컴퓨터 강사 및 프로젝트 관리자가 한 팀을 구성하여 관련 워크숍과 교육활동 등을 추진하였다. 이는 저소득계층의 정보접근과 학습향상을 지원함으로써 디지털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기여하였다(황소연 2010, 57).

4.2.2 국내사례

우리나라에서 출간된 관련 연구논문 및 보고서를 바탕으로 실제적으로 추진된 저소득계층을 위한 국내의 공공도서관 서비스 사례를 종합하면 <표 10>과 같다.

<표 10> 국내의 저소득계층 대상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사례 종합

연도	연구자	지역	도서관명	저소득계층 서비스
2010	황소연	서울	강남도서관	• 찾아가는 도서관 프로그램, 찾아가는 책 교실, 형아가 읽어주는 영어동화 등
			강서도서관	• 지역복지관 연계 - 아동 대상 논술/옛이야기 교실
			개포도서관	• 지역아동보호센터 연계 - 찾아가는 놀이터도서관
			고척도서관	• 지역아동센터 연계 - 방과 후 독서/NIE교실
			구로도서관	• 지역아동복지시설 연계 - 사서와 함께하는 이야기방 • 구로인력개발센터 연계 - 경제적 자립을 위한 한식조리과정
			남산도서관	• 소외계층 어린이 그림책 독서여행 • 집단독서치료 서비스
			도봉도서관	• 저소득계층 어린이를 위한 독서치료 • 지역복지관 원아와 함께하는 종이접기 - 독서와 아이클레이
			동대문도서관	• 순회독서지도 서비스 - SOS마을 시설 어린이 대상
			동작도서관	• 찾아가는 현장 독서지도/행복독서코치 • 소외계층 대상 부모교육
			서대문도서관	• 홍은2동 공부방 연계 - 찾아가는 독서지도
			송파도서관	• 찾아가는 행복교실 - 책과 친구되기 • 마천청소년수련원 연계 - 거여공부방
			양천도서관	• 지역공부방 지원 프로그램
용산도서관	• 관내 시설 연계 - 독서프로그램			
2011	곽동철 등	서울	비공개	• 과제지원센터 - 학습도움방 • 소외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행복교실 - 생각하기, 철학하기
		경기	비공개	• 지역아동센터 연계 - 행복한 꼬마 음악가
	서경주, 채혜민	서울	중량구립정보도서관	• 지역아동센터 연계 - 순회 독서지도, 도서 단체대출 서비스, 도서관 현장학습

조사결과, 아직까지 저소득계층만을 대상으로 한 국내의 공공도서관 서비스 사례는 전반적으로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도에 편중되어 있었고, 대상별로는 성인보다는 아동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대다수의 공공도서관들에서 저소득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도서관 내에서 운영하기 보다는 저소득계층 관련 복지관이나 센터 등과 협력을 통해 관련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지역 내의 기관이나 시설과 연계하여 순회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들이 많았다.

국내의 공공도서관에서 저소득계층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서비스의 형태는 크게 아동대상 유형과 성인대상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독서교실 및 독서치료, 공부방, 문화프로그램(음악가 되기, 철학하기, 종이접기 등)이며,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저소득계층의 경제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취업프로그램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앞에서 알아본 국내외 저소득계층 대상 도서관서비스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한 시사점으로 향후 필요한 새로운 저소득계층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시하면 <표 11>과 같다.

첫째, 저소득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동시에 장애인, 노인, 농산어촌 주민,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은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기획하고 운영 시에 이점을 숙지하고 저소득계층 유형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계획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

둘째, 국외사례인 필라델피아 무료도서관의 '정보기술실연 프로젝트'처럼 저소득계층의 디지털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도 공공도서관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국내의 저소득계층 대상 공공도서관 서비스는 성인보다는 아동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저소득계층 성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로서 구로도서관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한식조리과정 프로그램'과 같은 취업 관련 프로그램이나 남산도서관의 사례처럼 저소득계층 성인 대상 독서상담치료서비스를 도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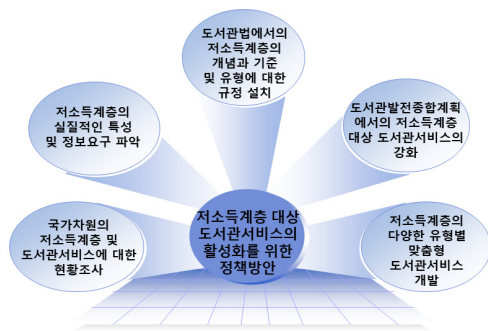
5. 논의 및 정책방안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정책상 도서관법과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

<표 11> 국내외 저소득계층 대상 도서관서비스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구분	도서관명	시사점
국외사례	필라델피아 무료도서관의 '정보기술실연 프로젝트'	• 저소득계층의 디지털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
국내사례	구로도서관	• 경제적 자립을 위한 한식조리과정
	남산도서관	• 독서치료서비스 제공

소득계층의 개념과 기준 및 유형을 살펴보았으며, 사례분석을 함으로써 저소득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의 현황을 알아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내에서 저소득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하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2> 저소득계층 대상 도서관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5.1 국가차원의 저소득계층 및 도서관서비스에 대한 현황조사

국가에서 총체적으로 실시한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도서관서비스 현황조사에서 다문화가정 및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수행되었으며(한윤옥 외 2008; 이주황 외 2017), 다양한 유형별 저소득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에 관한 현황조사는 전혀 수행된 바가 없다. 따라서 향후에는 국가기관에서 총체적으로 주관하는 저소득계층 및 저소득계층 대상 도서관서비스에 대한 현황조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광동철 등(2011)도 개별적으로 도서관서비스가 필요한 정보취약계층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광역시도 대표도서관 또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와

같은 도서관 행정 체계 상위기관 차원에서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5.2 저소득계층의 실제적인 특성 및 정보요구 파악

저소득계층은 도서관과 지리적으로 먼 곳에 거주한다거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시간적으로 여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여 이용하기가 어려운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저소득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를 개발할 때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기획하거나 공단 등의 지역 내의 장소를 마련하여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시간 또한 그들이 가능한 시간에 맞추는 등 무엇보다 저소득계층의 실제적인 특성과 정보요구를 파악하고 반영하는 일이 중요할 것이다.

5.3 도서관법에서의 저소득계층의 개념과 기준 및 유형에 대한 규정 설치

현재 도서관법 관련해서는 시행령에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대상은 명시되어 있으나 저소득계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즉, '도서관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정보취약계층을 네 집단으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65세 이상의 노인, 농산어촌 주민 및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도서관법 및 시행령에서 도서관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계층의 개념과 기준 및 유형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향후 국내 도서관에서 저소득계층을 위한 서비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도서관법에 저

소득계층의 개념과 기준 및 유형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4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서의 저소득계층 대상 도서관서비스의 강화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서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 도서관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면서 도서관서비스의 강화가 필요한 영역 중 하나로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선정하였으며, 다양한 지식정보 취약계층 중 장애인과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도서관서비스의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은 강조하였다. 그러나 저소득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의 강화 측면에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하고 있는 바는 없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한국의 도서관에서 저소득계층을 위한 서비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서 저소득계층 대상 도서관서비스의 강화 측면에서의 방향설정이 필요할 것이다.

5.5 저소득계층의 다양한 유형별 맞춤형 도서관서비스 개발 및 운영

저소득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면서 동시에 장애인, 노인, 농산어촌주민,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저소득계층 대상 도서관서비스의 개발과 관련해서 저소득계층의 다양한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를 계획하는 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광동철 등(2011)도 정보취약계층은 계층별로 고유한 특성뿐만 아니라 중복된 특성도 갖

는 교차집단이 존재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정보취약계층 대상 도서관서비스의 방향을 설정할 시에는 총체적이며 통합적으로 모색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6.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저소득계층의 개념과 기준 및 유형에 관하여 살펴보고, 사례조사를 통해 저소득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를 토대로 저소득계층에게 필요한 새로운 도서관서비스를 제안하였으며, 저소득계층 대상 도서관서비스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결과 및 도출된 시사점을 종합·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저소득계층이란, 경제적인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으로서 공적인 빈곤기준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본다면 기초생활수급권자(1순위)와 차상위 계층(2분위)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소수의 연구자는 저소득계층을 소득수준이라는 경제적인 수준 이외에 사회적으로도 불이익을 당하는 극빈계층으로 규정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계층의 개념을 경제적인 소득수준이 낮아서 가구당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누릴 수 있는 도서관서비스와 같은 복지혜택을 못하고 있는 계층으로 정의하였다.

둘째, 우리나라에서 저소득계층으로 규정할 때 통상적으로 많이 적용하는 판단기준은 경제적인 소득기준으로서 최저생계비인 것으로 확

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인 2018년에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삼았다. 즉, 소득수준이 1인 가구와 4인 가구 기준으로 668,842원과 1,807,681원 이하인 경우 저소득계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도서관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계층의 경제적인 소득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셋째, 저소득계층의 대상 및 유형 구분에 대한 접근은 방대한 학문 분야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계층의 대상을 가장 일반적으로 많은 연구논문 및 보고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도서관에서 서비스해야 할 저소득계층에 포함될 수 있는 유형은 장애인, 노인, 농산어촌주민 등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음을 전제하였다.

넷째, 한국에서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아직까지 저소득계층만을 위한 국내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사례는 전반적으로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상별로는 성인보다는 아동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대다수의 공공도서관들에서 저소득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도서관 내에서 운영하기

보다는 저소득계층 관련 복지관이나 센터 등과의 연계를 통해 관련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섯째, 현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필요한 새로운 저소득계층 대상 도서관서비스로서 저소득계층의 디지털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관련 프로그램의 시행과 저소득계층 성인 대상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취업 관련 프로그램 및 독서상담치료서비스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여섯째,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앞으로 저소득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방안으로 국가차원의 저소득계층 및 도서관서비스에 대한 현황조사, 저소득계층의 실제적인 특성 및 정보요구 파악, 도서관법에서의 저소득계층의 개념과 기준 및 유형에 대한 명확한 규정 설치,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서의 저소득계층 대상 도서관서비스의 강화, 저소득계층의 다양한 유형별 맞춤형 도서관서비스 개발 및 운영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국내 도서관계에서 저소득계층을 위한 서비스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한국에서 저소득계층 대상 도서관서비스 관련 법 및 정책 수립 시에 기초자료로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된다.

참 고 문 헌

강정숙. 2004. 『사회적 지지가 저소득층 노인 부양부담 감소에 미치는 영향: 75세 이상 취약노인(frail elderly)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사업학과.

- 곽동철 외. 2011.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의 정보취약계층서비스 확대전략개발 연구』.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기초보장연구실. 2017. 『2017 빈곤통계연보』.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순양, 전기우. 2011. 지역사회의 교육불평등(educational inequality) 해소를 위한 정책적 우선순위의 탐색: 대구·경북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3(4): 1209-1244.
- 김유미. 2007.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정보격차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행정차지대학원, 전자정부전공.
- 김태완 외. 2013. 『2013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태완 외. 2017.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서울: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해영. 1994. 『저소득층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양육행동 및 아동의 사회적 능력』.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 남영준. 2007.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1(4): 49-68.
-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14.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4-2018)』. 세종: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 민은성. 2012. 『집단상담이 저소득층 청소년의 인생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교류분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 박서영. 2018. 『저소득층 주거지원 프로그램별 주거만족도와 주거안정성 분석』.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 박영아. 2004. 『집단미술치료가 저소득층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재활과학과.
- 박찬용, 김미숙. 1998. 『한국의 빈곤현황과 정책과제』. 서울: UNDP,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경주, 채혜민. 2011. 취약계층을 위한 도서관 맞춤 서비스. 『도서관연구소 웹진』, 77: 1-22.
- 서병수. 2008. 한국의 최저생계비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 『사회복지정책』, 34: 383-441.
- 서우석, 양효석. 2013. 문화적 박탈감을 통해 살펴본 문화복지 대상 범위 연구. 『문화정책논총』, 27(1): 164-197.
- 신원우. 2016. 문화복지수준에 대한 인식 및 전망 차이에 관한 연구. 『문화산업연구』, 16(2): 41-47.
- 엄태완. 2008. 빈곤층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우울 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의 효과.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8: 36-66.
- 윤정옥, 곽동철, 심경. 2012. 정보취약계층의 정의와 속성에 관한 고찰. 정보취약계층의 정의와 속성에 관한 고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6(4): 189-206.
- 윤희윤. 2012. 공공도서관의 지식정보 취약계층서비스 전략.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2): 53-75.

- 이연옥, 노영주. 2012. 독서프로그램이 소외계층 아동에게 미치는 효과와 의미: 도서관과 함께 채워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1): 73-98.
- 이은우. 2006. 중학생 가정의 소득 및 사교육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3(6): 247-274.
- 이은철, 심효정. 2008. 공공도서관의 지식정보격차해소 기여도 분석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2(2): 309-325.
- 이주황 외. 2017.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현황조사』.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
- 이혜영. 2005. 도시 저소득 계층의 교육격차와 빈곤 대물림을 끊어라. 『교육개발』, 32(1): 59-65.
- 장덕현. 2005. 도시 저소득층의 정보빈곤 양상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도서관 봉사방안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6(1): 219-326.
- 정미라, 박은순, 윤장숙. 2007. 저소득층과 일반계층 아동의 양육 실태 비교. 『열린유아교육연구』, 12(4): 347-369.
- 정보람, 전인수. 2017. 소득수준과 문화적 여건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문화정책논총』, 31(1): 30-51.
- 조용완. 2007. 국내 공공도서관의 정보격차해소 활동에 대한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8(4): 167-186.
- 한윤옥 외. 2008. 『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 허미연 외. 2012. 『도시 저소득층 학생의 학교밖 교육 실태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황소연. 2010. 『공공도서관의 정보격차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문헌정보교육전공.
- Balkin, S. 1989. *Self-Employment for Low-Income People*. New York: Praeger.
- Elahi, H., Md. Shiful Islam, and D. Begum. "Perception on the Use of Mobile Phones in Retrieving Information from Academic Libraries: A Developing Country Perspective." *International Journal of Knowledge Content Development & Technology*, 8(1): 37-50.
- Orshansky, M. 1965. "Counting the Poor: Another Look at the Poverty Profile." *Social Security Bulletin*, 28(1): 3-29.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ang, Duk-Hyun. 2005. "Information Poverty of the Urban Poor and the Role of Public Library Services in Bridging the Digital Divide: An Ethnograph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6(1): 219-236.
- Cho, Yong-Wan. 2007. "Analysis of the Activities of Public Libraries for Closing the Information Divide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8(4): 167-186.

- Chung, Mi-Ra, Eun-Soon Kwak, and Jang-Suk Youn. 2007. "Comparison of Patenting Between Middle and Low Income Families." *The Journal of Open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12(4): 347-369.
- Committee on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2014. *Second Library Development Plan 2014-2018*. Sejong: Committee on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 Eom, Tae-Wan. 2008. "The Effects of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Stress and Depression of the Indigent Population." *Mental Health & Social Work*, 28: 36-66.
- Han, Yoon-Ok et al. 2008. *Study on the Development of Multicultural Library Services*. Seoul: National Library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 Heo, Mi-Yeon et al. 2012. *Actual Condition of Education of Exterior School for the Urban Poor*. Seoul: Korean Education Development Institute.
- Hwang, So-Yeon. 2010. *A Study on the Settlement Strategy of Public Libraries' Informational Gaps*. M.A.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ungang University, Library and Information Education.
- Jeong, Bo-Ram and In-Soo Jeon. 2017. "Influence of Income Level and Cultural Conditions on Happiness." *The Journal of Cultural Policy*, 31(1): 30-51.
- Kim, Hae-Young. 1994. *Marital Satisfaction, Child-Rearing Behavior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on Low-Income Class*. M.A.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Early Childhood Education.
- Kim, Soon-Yang and Gi-Woo Jeon. 2011. "Setting a Policy for the Reduction of Educational Inequality: An AHP Analysis of The Educational Welfare Support Project."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Quarterly*, 23(4): 1209-1244.
- Kim, Tae-Wan et al. 2013. *A Study on the Methods of Calculation on the Minimum Living Cost in 2013*. Seoul: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Kim, Tae-Wan et al. 2017.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Investigation and Evaluation of Basic Livelihood Security in 2017*. Seoul: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Kim, Yu-Mi. 2007. *A Study on the Solution of the Digital Divide for Information Disadvantaged Groups*. M.A.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Hanyang University, Electric Government.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7. *2017 A Study on the Annals of Poverty*

- Statistics*, Sejong: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Kwack, Dong-Chul et al. 2011. *Study on the Strategic Development of Library Service of the Alienated Class for the Solving Digital Divide*. Seoul: National Library of Korea.
- Lee, Eun-Chul and Hyo-Jung Sim. 2008. "Basic Study for Analysis of Public Libraries Contribution for Resolving the Gap in Knowledge and Informa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2(2): 309-325.
- Lee, Eun-Woo. 2006. "The Impact of Household Income and Private Education on Academic Performance of Middle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3(6): 247-274.
- Lee, Hye-Young. 2005. "The Suspension of Education Divide and Poverty Transmission of Low-Income Class in Cities." *Education Development*, 32(1): 59-65.
- Lee, Ju-Hwang et al. 2017. *Current State of Library Service for the Disabled Users*. Seoul: National Library of Korea, National Library for the Disabled.
- Lee, Yeon-Ok and Young-Joo Noh. 2012. "The Effect and Meaning of Reading Program for Alienated Children: Focused on The Reading Program with Librar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3(1): 73-98.
- Min, Eun-Sung. 2012. *A Study of the Impact of Group Counseling on Low-Income Youth's Attitude - Based on Transactional Analysis*. M.A.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Policy, Hanyang University, Social Welfare.
- Nam, Young-Joon. 2007. "A Study on Revitalization of Library Service for the Alienated Clas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1(4): 49-68.
- Park, Chan-Yong and Mi-Sook Kim. 1998. *A Study on the Current State of Poverty and Policy Tasks In Korea*. Seoul: UNDP,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Park, Seo-Young. 2018. *An Analysis of Housing Satisfaction and Stability by the Housing Support Programs for the Low-Income*. M.A.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Environmental Planning.
- Park, Young-Ah. 2004. *The Effects of Group Art Therapy on the Self-Efficacy of Low-Income Teenagers*. M.A.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Rehabilitation Science, Daegu University, Psychologytherapy.
- Seo, Kyung-Ju and Hye-Min Chae. 2011. "Study on the Specialized Library Services for the Alienated Class."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ibrary and Information*, 77: 1-22.
- Seo, U-Seok and Hyo-Seok Yang. 2013. "Determining Recipients of Cultural Welfare Based on Cultural Deprivation." *The Journal of Cultural Policy*, 27(1): 164-197.
- Shin, Won-Woo. 2016. "A Study on the Difference of Perception and Prospect of Cultural

- Welfare Level.” *Journal of Korea Culture Industry*, 16(2): 41-47.
- Suh, Byung-Soo. 2008. “An Inquiry into Korea’s Cost of Living.” *Social Welfare Policy*, 34: 383-441.
- Yoon, Cheong-Ok, Dong-Chul Kwack, and Kyung Shim. 2012. “A Study on the Definitions and Characteristic of the Information Poor.”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6(4): 189-206.
- Yoon, Hee-Yoon. 2012. “Strategy of the Knowledge and Information Services for Vulnerable Classes in Public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3(2): 53-75.